

대한민국 체제 전쟁 전면전: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살 수 있다!

호4:6

왜 우리는 성경을 읽는가? 다수의 사람들이 구원

그리고 그날 그날의 위로 말씀, 성화, 제비뽑기 QT식 성경 읽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성경기록의 목적: 딤후3:16-17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진다는 말의 의미

모든 선한 일은 교회 안에서만 생기는 일일까?

예수님의 말씀, 마5:13-14, 세상의 빛과 소금, 시민 의식, 애국, 국가 체제 지키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진리, 그런데 그 진리가 구원, 교회, 하나님 등 피상적인 기독교와 관련된 것들에서만 진리로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Total truth를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 Total truth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 권한 대행 탄핵, 권한 권한 대행 계속해서 탄핵하겠다고 한다. 환율이 1500원대 접근, 대외신인도 하락

국가 몰락의 서곡, 중북 좌익 세력들의 내란, 오늘 호세아서 4장, < >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국가가 망한다. 그러나 살 길이 있다. 회개하고 지식을 갖추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된다.

호세아서

시대적 배경: 호세아, 여로보암 2세의 말기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두고까지 활동한 대언자이다.

기록 시기: 주전 720년경, 성격: 대언, 기간: 약 60년

북 왕국 이스라엘 19명의 왕 존재, 100% 사악함, 여로보암 1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단과 벧엘에 금송아지를 두고 우상을 숭배함 (*)

여로보암의 통치, 단과 벧엘에 금송아지(왕상12:27-32), 설명

선한 제사장들 남하함, 왕이 원하는 악한 자들이 제사장이 됨(대하11:13-15)

그런다가 일곱 번째 왕 아합 시대에 바알 숭배를 도입함, 이세벨,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인데 남편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감

이것을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부른다. 이 영적 간음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자 하나님은 시창각 교육을 시킴, 그래서 호세아와 창녀 고멜이 등장함

호세아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창녀 고멜과 결혼해서 3명의 아이들을 낳음. 고멜이 다시 집을 떠나 살다가 노예 시장에 팔려 나옴. 호세아가 다시 그녀를 산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어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신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고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절된다.

교훈: 하나님의 선민의 국가도 망한다.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왜 이스라엘이 망하는가? 호4:6,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과 우상들을 구별하는 지식이 없다. 놀라운 일이다.

왜 지금 대한민국이 몰락의 위기 앞에 놓였는가? 지식이 없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목사들, 교회들이 지식이 없어서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은 아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대체 무엇을 알아야 한단 말인가?

북 왕국 이스라엘, 남 왕국 유다, 자칭 타칭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을 다 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 아는 것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신다. 왜 이런 아이러니가 생길까?

지금은 21세기 컴퓨터 시대, 인공 지능 시대, 네이버, 구글 ChatGpt에 물어보면 다 답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을까? 대답: 아니다!. 모르기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있다.

다수의 국민들이 이대로 가면 베네수엘라처럼 공산사회주의 전체 국가가 돼서 자유를 잃고 세계 최빈국

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진리가 없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무슨 지식이 없는가?

1절, 진리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사회의 약자들을 배려하는 긍휼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백성과 논쟁하시며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망하게 하신다.

진리: 하나님이 진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다. 성령님이 진리이시다. 성경 말씀이 진리이시다.

대다수 사람들의 오해: 이스라엘, 유다, 대한민국 성도들

성경의 진리, 하나님이라는 진리는 교회 안에서만 진리라는 착각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의 진리, 하나님이라는 진리가 교회 밖의 세상에서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국가가 사회는 붕괴된다.

총체적 진리(Total truth) (*)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를 담고 있다. 이 진리는 단순히 영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인간 삶의 모든 분야에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우리는 'Total Truth(총체적 진리)'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진리로 자리 잡아야 한다.

사회와 문화도 마찬가지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가르치며, 인간 존엄성과 사랑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관계를 요구한다. 또한, 문화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린도전서 10:31)는 말씀처럼, 문화 활동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진리로 자리 잡아야 한다. Total Truth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리이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Total Truth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정치 면에서의 진리

특히 정치인 인간 사회의 중심에서 질서를 세우고 공의를 실행하는 중요한 도구다. 성경은 정치가 하나님의 법과 진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국가가 번영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잠언 14:34은 "의는 한 민족을 높이지만 죄(중복 죄익)는 어느 백성에게나 치욕거리이니라"라고 말씀하며, 공의와 정의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가르친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역사는 정치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 준다.

웨인 그루뎀, 성경과 정치(*)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날 때마다 타락과 멸망의 길을 걸었고, 유다 왕국 역시 정치적 선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때 큰 대가를 치렀다. 열왕기하와 역대기에 기록된 여러 왕들의 역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있을 때는 복과 평안이 임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 통치할 때는 혼란과 심판이 임했음을 증언한다. 예레미야 대언자의 사역은 이러한 배경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유다 백성이 정치적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예레미야 사역의 핵심

눈물의 대언자로 알려진 예레미야, 그는 40여 년을 하나님의 말씀 대언

당시 유다의 상황, 위로는 바빌론 밑으로는 이집트, 유다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지만 지정학적인 현실에서는 두 나라 중 하나를 잘 선택해서 연합해야만 살 수 있었다.

그래서 대언자 예레미야는 바빌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유다가 취해야 할 선택을 분명히 제시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빌론을 택해야 유다가 살 수 있다고 외쳤다. 예레미야 27:6-7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 ”

이는 단순히 외교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믿음의 문제였다.

그러나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은 이집트를 의지하려 했고,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였다. 이집트는 세속적 힘과 의지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이집트가 아니라 바빌론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다. 예레미야 42:19-22, 대언자의 외침. “ ”.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 세상의 상황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행동해야 함을 강력히 경고하는 말씀이다.

정치적 선택은 단순히 인간적 계산이나 힘의 논리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돌아가는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두어야 함을 가르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나라의 주권자이시며, 인간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사야 46:10,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며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정치적 선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생존과 축복의 문제이다.

예레미야 당시 유다의 패망 원인(5:1), 진리,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불행한 결과

북 왕국 이스라엘과 남 왕국 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진리가 없이 무지한 가운데 결국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대한민국도 북 왕국 이스라엘, 남 왕국 유다처럼 지난 150년 동안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의 장이 되어 왔다.

1948년 8월 15일 건국 이후에도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도 중구 북한 러시아 등의 대륙 세력과 미국 일본 등의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프런티어가 되어 왔다. (*)

성경의 역사를 근거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정치적 선택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대륙 세력(중국, 북한, 러시아)과 해양 세력(미국, 일본) 사이에 위치한 국가로서, 그 선택이 국가의 존립과 번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성경에서 예레미야 대언자가 유다 왕국에게 바빌론을 택할 것을 외쳤던 것처럼, 대한민국 역시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해양 세력을 선택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대륙 세력은 권위주의적 체제와 중앙집권적 통치를 통해 주변 국가에 압박과 침략을 가해왔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자신의 영향권으로 두려는 정책을 펼쳐왔으며, 북한은 전체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과거 제국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를 통해 주변 국가들을 억압했던 전례가 있다. 이들 대륙 세력은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며, 국가 간의 평화로운 공존보다는 지배와 복속을 추구해 왔다.

반면, 해양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국가 간 협력을 지향한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일본 역시 과거 식민지 지배의 역사가 있지만, 현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유하며 경제적, 안보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해양 세력은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며, 국제 질서의 안정과 번영을 추구한다.

대한민국이 해양 세력을 선택해야 할 이유는 현대 역사에서도 명백하다. (*) 냉전 시기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공산주의 확장을 저지하고, 경제적 번영과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반면, 북한은 대륙 세력의 지원을 받으며 독재와 빈곤의 길을 걸었다. 최근의 국제 정세에서도 대륙 세력은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압박을 통해 대한민국을 흔들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해양 세력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상황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함을 가르친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며, 해양 세력과의 동맹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외교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한 생존과 축복의 문제이다. 예레미야

가 유다 백성에게 바빌론을 택하라고 외쳤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자유를 지키는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Total Truth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적 선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지식

호세아서 4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백성이 어떤 지식이 있어야만 망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 ”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세속적인 학문이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아는 참된 지식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을 잃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지식이 필요하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1절, 호6:6).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민족과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신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끝은 멸망뿐이다. 이 나라를 누가 세웠는가? 크리스천 이슬람과 기독교 세력이 기도하며 성정에 손을 얹고 세웠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둘째, 하나님의 법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의 법은 공의와 정의의 기초다.

시편 33:12,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지키는 나라는 복을 받고 번영하지만, 이를 떠난 나라는 혼란과 파멸을 겪게 된다.

하나님의 법인 성경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하지만 강자들이 약자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엄중하게 가르친다(출22:22-24).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1)을 가져야 한다(호6:6).

그러지 않으면 결국 약자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나라는 망하게 된다.

셋째, 역사를 아는 지식이다. 성경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뜻을 외면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 준다. 대한민국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할 때 복을 받았고, 그렇지 않을 때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냉전 시기 공산주의 세력과의 대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진 선택이었다.

넷째, 현실을 분별하는 지식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돌아가는 상황을 지혜롭게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는 길을 선택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

다섯째, 요17:3,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면 누가 가르쳐야 하는가?

그 당시 제사장들, 대언자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 능력도 없었다. 그 결과 제사장과 백성이 다투다(4), 대언자가 넘어진다(5). 그 백성에 그 제사장이 된다(9).

현대 대한민국의 문제: 목사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리고 교육을 많이 받고도 악을 보고는 한마디 말을 못하는 고위층, 교수, 박사, 국회의원 등

이러면 나라가 망한다.

대한민국의 현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에는 세 가지 주요 요인이 있었다.

1. 국회의 국정 마비 시도: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은 다수당이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방탄 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며, 예산 폐지 등을 통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치 폐약질'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습

다.

2.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비상사태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여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목사, 성도들 교회들, 그리고 정치 경제, 교육의 지도자들 호14:1-2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체제 전쟁의 전면전에서 이길 수 없다.

기도해야 한다, 호소해야 한다.

2. 알려야 한다. 무지를 깨우쳐야 한다.
3. 중북 주사파 세력 척결해야 한다.
4. 부정 선거 세력 척결해야 한다.

결론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리를 버리고 죄악에 빠진 결과 영적, 도덕적 타락이 찾아왔고, 이로 인해 백성과 땅이 모두 황폐해졌다. 특히 제사장과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며, 그들이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해 심판을 더욱 악화시켰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진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나라가 망한다.

21세기 대한민국 백성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외면한다면, 멸망의 길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행동한다면, 대한민국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나라가 지속되도록 회개하고 기도하자. 윤 대통령과 자유 민주주의 세력이 기세를 회복해서 바른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제2의 건국 전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